

지역 매 아리

고창군, 사무관 승진자에
조선시대 교지 전해 '눈길'

고창군이 사무관(5급) 승진 공무원들에게 조선시대 왕이 신하에게 주는 임명장 교지(敕旨)를 수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5일 사무관 승진 임용식을 열고 대상자 8명에게 '교지' 임용장을 전달했다. 교지는 조선시대 왕이 4품 이상 관리에게 주던 관직 임명장이다. 교지 임용장은 종이를 천에 붙인 두루마리 형태다. 고창군은 군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무관에게 강력하고 청명하게 군정에 임하라는 뜻으로 교지 임용장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제작된 교지 임용장을 받은 사무관들은 조선시대 청백리 자세와 자부심을 갖고 면사무소 명장 등으로 근무하게 된다. 유이상 고창군수는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초심을 잃지 말고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스마트 그늘막 설치

정읍시가 폭염 속 팽발에 노출되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주요 도로변과 횡단 보도 등 10개소에 스마트 그늘막을 시범 설치했다. 스마트 그늘막은 현재 5개소에서 운영 중인 기존의 접이식 그늘막의 단점을 개선했다. 설치된 그늘막은 폭염 시 즉각 활용이 어렵고 태풍·강풍 시 인력을 투입해 접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반면 스마트 그늘막은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해 기온·풍량 등 기후 변화에 따라 그늘막이 자동으로 개폐되는 자동식 차양시설이다. 기온이 20℃ 이상, 바람세기가 초속 7m 이하 시 자동으로 가동된다. 초속 7m 이상의 바람이 불거나 기온이 15℃ 이하일 때, 일몰 후 어두워졌을 때는 자동으로 접힌다. 특히 여름 한낮에는 좌우로 퍼져 10명 이상의 시민이 동시에 햇빛을 피할 수 있다. 설치 면적도 크지 않아 보행에 지장이 없다. 또 도시미관을 위해 세련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설치됐다. 유진섭 시장은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 상반기 10여 개소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정읍방문의해를 맞아 시민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에게 여름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해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여름철 폭염 예방을 위해 생활밀착형 폭염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진실 규명으로 명예회복 나선다

부안군, 군 복무 중 사망 진상규명 홍보 강화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택)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 분들이 위원회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동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 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안군청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지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쌍화차거리 청년 창업자 모집합니다"

정읍시, 청년창업물 조성사업 조건 완화 재공고... 18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정읍쌍화차거리' 청년창업물 조성 사업을 위해 거리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물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를 재모집한다. 시는 청년창업물 조성사업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자 자격 요건을 만18세부터 만45세(1974.1.1.이후 2001.12.31.이전 출생자)까지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사업 양도·양수 또는 포기 시 보조금 환수 조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정읍시 거주제한을 접수일 현재 정읍시 거주자로 완화한다. 청년창업물 조성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청년창업물은 총 4개소가 조성될 예정으로 1개소 당 3천7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내용은 빈 점포 리모델링비 3천만원 지원을 비롯한 임대료와 공공요금 일부지원, 컨설팅비 지원 등이다. 사업 희망자는 정읍쌍화차거리(정읍읍서~양자강) 내 빈 점포 건물주와 사전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쌍화차거리 활성화를 위한 창업아이템으로 거리와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4일부터 18일까지 15일 간이다. 유진섭 시장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건을 완화하여 재공고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청년창업물 조성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입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춰 젊은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여행박람회 참가... 주요 관광지 홍보

고창군이 국내최대 규모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지역의 아름다운 야경 알리기에 나섰다. 고창군에 따르면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고창군의 주요 관광지와 농특산물 등을 홍보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코엑스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여행 박람회다. 이번 여행박람회의 주제는 '인생여행'이다. 관광객의 지역 체류 시간을 늘리려 야간 관광콘텐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 일몰, 석양, 도시 야경, 반딧불이, 별, 달, 야시장 등 밤에 경험할 수 있는 여행 테마들을 소개했다. 고창군은 홍보부스를 차리고 고창읍성 경관조명과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인 고창모양성제를 비롯한 정보리발 축제 알리기에 주력한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민여행사(농촌관광 팸파시업

단)가 함께 참가해 고창만의 농촌체험에 관광을 더한 관광상품도 함께 홍보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읍서~양자강) 내 빈 점포 건물주와 사전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쌍화차거리 활성화를 위한 창업아이템으로 거리와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4일부터 18일까지 15일 간이다. 유진섭 시장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건을 완화하여 재공고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청년창업물 조성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입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춰 젊은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인태 정읍 부시장이 2019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지난 5일 상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방문,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쳤다. 현장 점검은 전북도와 정읍시, 정읍소방서 시가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전북과하대 학교의 건축토목학과 교수와 대학생 점검단도 함께 참여해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중점 점검은 추락·낙하위험 방지 설비 관리 상태와 안전모·안전화 등 착용상태, 현장 정리정돈 상태 등 고질적



정읍시가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5일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임원, 시민단체와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자연과 공존하는 울창한 희망 심기

정읍시, 시민과 함께 하는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가져

정읍시는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5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임원, 시민단체,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시기동 임애(산9-22번지) 정읍사공원 시유림 3천여평에 편백나무 5년 생 묘목 1천200여 본을 심었다. 특히 유 시장은 식목일을 기념해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시립미술관 옆에 30년생 단풍나무(근원직경(根元直徑) 32mm, 높이 5m)를 심었다. 시 관계자는 "식목일을 맞아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자연친화적 생태·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숲은 기후변화

김인태 정읍 부시장,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나서

인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 실시했다. 또 공사장 안전조치 사항과 전기·소방시설물 관리상태 적정 여부 등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에 관련된 시급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인태 부시장은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며 "건설시공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내 집과 내 점포는 스스로 점검해 안전한 정읍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o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